

동화 심사평*

윤기현

***13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5.18 묘지에 체험학습을 나왔던 아이들이 향로에 향을 넣고 묵념을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듣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판타지로 들어가는 문으로 아이들을 1980년 5월 달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 거기서 5.18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기차 화장실 문으로 나와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있다.

교과서적인 판타지 기법으로 형식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끝어가는 것이 차분하고 좋았으며 끝맺음을 판타지 속으로 끌고 와 시간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현실로 와 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끔 하려는 배려로 읽힌다.

교과서적이지만 그런 점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힘이 된 것 같다.

**11. 마니나개미왕국의 탄생

현실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을 옛이야기로 바꾸는 시도는 참신함으로 읽힌다.

노랑개미왕국의 권력 승계에서 포악케 공주는 권력을 잡기위해 거짓과 술수를 쓴다. 권력을 승계하는 조건은 알을 많이 낳아서 왕국을 부흥시키는 능력을 인정 받는 것이다. 포악케 공주 개미는 알을 많이 낳으려면 배가 커야하기 때문에 배에 스트로폼을 넣어 배를 키우는 수술을 하고 비밀을 알고 있는 의사개미를 더듬이를 때어버려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붉은 개미알을 훔쳐 자신이 낳은 것처럼 소기는 등 거짓과 무자비한 일을 일삼는다. 그래 결국은 왕국을 이어받아 여왕으로 등극을 하고 마니나개미는 능력이 더 좋지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 신세가 된다.

여기서 포악케 공주는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5.18에 죄 없는 국민을 학살하는 등 권력을 위해 무자비한 일을 일삼는다거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속임수를 쓰는 등 권력을 위해 하는 행동들의 보편성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은 무난한 설정이다. 그런데 개미세

계를 그리면서 스치로폼을 배에 넣고 수술을 한다거나 마니나개미가 포악케공주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확성기를 들고 이야기를 한다는 등 인간들의 최선 발명품들을 쓴다는 것은 치명적인 흠이 된다. 외국 전래동화에 늑대 배에 돌을 넣고 깨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를 했으면 한다.

*3. 오월에 온 손님들

80년 5월18일에 가까운 어느 날 광주 변두리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 같은 이야기를 현대담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화자 근우 막내 고모가 혼인을 하는 날이다. 그런데 장가를 들 막내고모부가 없어서 버렸다. 결혼식 날 새벽 일찍 목욕을 하러 간다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와 근우는 찾으러 간다고 정류장에 나갔지만 차들이 다니지 않았다.

가게집 아저씨는 시내에서 난리가 났다고 야단들이고 그래서 차들이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5.18이 일어난 것이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사이저녁이 돌아오고 근우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고 연락이 와 아버지와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

고모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혼례 옷마저 벗지 않고 누워있고 엄마는 애를 낳은 후 고모부가 흙과 풀물이 범벅인 채 동네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다. 고모부는 시내에 난 리가 났다는 것을 알리고 정신을 차려 늦게나마 식을 올렸다. 그런데 식이 끝나고 나서 군인들이 검문소를 피해 도망간 사람이 있다며 근우의 집에 들어 닥쳐 검문을 하는 사이 할아버지가 나서 도망 온 사람이 막내손자 사위라며 자신을 잡아가라고 하며 군인들을 달래고 잔치 상을 같이 나누게하고 할머니는 돌아가는 군인들에게 잔치음식을 싸준다. 군인들은 자신들은 여기 오지 않았다고 하며 돌아간다.

이야기는 실감나고 있음직한 이야기다. 그런데 시차를 그대로 두어서 30여 년 전 이야긴지 오늘의 이야긴지 잡히지 않으며 군인들과의 화해의 장면이 조금 치밀하게 그려지지 못한 것 같다. 때문에 주제가 조금 흐려지며, 흘러간 후일담처럼 들리는 게 힘이다.

*14. 마을의 종소리

5.18 부상자로서 어느 마을에 종치기로 일을 해주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마을에 버린 아이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5.18부상자에게 아이를 맡아 기르게 한다. 5.18부상자는 아이를 내 아이처럼 기르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정체성을 찾는 방향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아이 어머니가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 5.18부상자는 정든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고 결심을 하는데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찾으러 왔다가 부상자 아저씨와 사랑을 이루고 행복을 가정을 이룬다는 이야기다.

작품을 너무 객관적으로 끌고 가다보니 중간에 시점이 많이 흐려지는 혼란이 있다.

*15. 절름발이 아저씨

5.18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치고 -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져 고물이나 주우러 다니고-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 그래도 사람 좋게 참아 내고 - 자식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가난과 불행이 5.18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고 - 아이들이 반성하고 - 부상자의 아들을 돕는다는 틀이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고 이런 의식수준을 작품으로 보여준 것이 절름발이 아저씨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5.18을 교육 할 것이며 5.18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문제를 던져주는 작품이다. 5.18 관련단체와 광주전남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다.

1. 달려라, 담비.

나비(고양이)는 이층집 할아버지의 보일러실 지붕에서 지냈다. 친절한 집 주인 때문에 있기가 편했지만 힘든 고양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그곳을 떠난다.

아파트로 옮겨와 지하에 갇히기 전 까지 그런대로 살만 했다. 경민이에게 금빛양이, 금비라고 불리며 가까운 사이가 된다. 그러다가 병을 옮긴다는 명목으로 지하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호령을 만나게 되고 호령은 고양이들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탈출해야한다고 한다.

경민이가 막힌 창살을 망치로 뜯어주어 그곳으로 도망을 나온 나비, 금비와 호령은 고양이들만이 사는 곳을 찾아 달려간다. 송미산에 할머니 집이 고양이들이 사는 곳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게 된다. 거기서 미미를 만나게 되고 수니를 만났다. 그러나 감자할머니의 절룩이는 다리와 숫자가 붙어나는 공양이를 보고 호령과 금비는 다시 떠났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어느 산꼴짜기의 고양이들만 사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어 몰려오는 고양이들의 숫자가 많아져 스스로 규율을 정해놓고 살지만 불안하기만 하다. 어느 날 사람들이 덫을 놓아 호령을 잡아간데 같이 있는 친구들은 나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사람들이 호령을 죽이지 않고 수술만 해서 다시 보내줄 것이라고 한다. 정말 호령이 다시 돌아왔다. 수술을 받은 호령은 순해지고 야생이 없어져버린다. 이성을 그리워하지도 않는다. 거기에 실망을 한 금비는 거기도 고양이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며 어딘지 모를 고양이들이 사는 세상을 향해 떠난다는 것이다.

-본능적인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작품은 주제를 이야기로 묘사하는데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는 보통 우화나 본래 담이 많다.

고양이들의 삶을 통해 교훈을 이끌어 내려는 것인데 생태학적인 고양이의 세계를 그려내면서 그들의 삶에서 인간 삶의 유사성을 거울에 비추듯 비추어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관념적인 단어들을 끼어 넣어 분위기를 잡아가려고 하는데서 소화되지 못한 관념의 유희로 전락하고 말았다.

2. 좀비 바이러스 (어디에서 본 것 같음.)

같은 공장에 다니는 재희네 집과 헤민이네 집은 형제들 보다 좋은 사이다. 그런데 직장에 구조 조정이 밀려오면서 갈등이 생겨나고 그것은 재희와 헤민의 갈등으로 까지 번진다. 우여곡절 끝에 공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두 집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재희와 헤민이도 화해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재희와 헤민의 우정과 아빠들의 우정이 너무 자의적이고 도식적인 관계로 그려지고 있다. 고양이 같은 재희 아버지와 헤민이 아버지가 같은 날 나란히 입사하게 되고 사원아파트 옆집에 살게 되고 사랑초등학교에 3학년인 재희와 헤민이는 친 자매처럼 가깝게 지낸다. 그러나 직원 30% 감원이라는 회사 방침에 조장을 번번히 양보한 헤민이 아버지가 짝리게 된다. 그런데 조장 재민이 아버지가 주동이 되어 회사와 싸워 노동시간을 줄이고 사원을 짜르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타협을 해 헤민이 아버지가 직장을 잃지 않아도 된다. 그 과정에서 재희 아버지는 헤민이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번번이 조장자리를 양보한 것을 이야기 하고 헤민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다는 것까지 알고 새로운 우정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부인들과 아이들이 그동안 서로 문제를 확대하고 오해를 했던 것을 풀어나가고 어머니들의 노력으로 재희와 헤민이도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줄거리는 시의 적절하게 잘 잡았는데 작품으로 형상화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어른들이 우정과 부인들의 오해와 오해의 확산, 그리고 아이들끼리 오해가 번지는 것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은밀한 심리적 과정의 치밀함이 부족하고 갈등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극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재희

와 헤민이의 오해와 갈등이 너무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거기서 오는 감동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좀 더 노력해야할 것 같다.

*3. 오월에 온 손님들

80년 5월18일에 가까운 어느 날 광주 변두리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 같은 이야기를 현대담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화자 근우 막내 고모가 혼인을 하는 날이다. 그런데 장가를 들 막내고모부가 없어져 버렸다. 결혼 식 날 새벽 일찍 목욕을 하러 간다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와 근우는 찾으러 간다고 정류장에 나갔지만 차들이 다니지 않았다.

가게집 아저씨는 시내에서 난리가 났다고 야단들이고 그래서 차들이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5.18이 일어난 것이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사이저녁이 돌아오고 근우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고 연락이 와 아버지와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

고모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혼례 옷마저 벗지 않고 누워있고 엄마는 애를 낳은 후 고모부가 흉과 풀뿔이 범벅인 채 동네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다. 고모부는 시내에 날 리가 났다는 것을 알리고 정신을 차려 늦게나마 식을 올렸다. 그런데 식이 끝나고 나서 군인들이 검문소를 피해 도망간 사람이 있다며 근우의 집에 들어 닥쳐 검문을 하는 사이 할아버지가 나서 도망 온 사람이 막내손자 사위라며 자신을 잡아가라고 하며 군인들을 달래고 잔치 상을 같이 나누게하고 할머니는 돌아가는 군인들에게 잔치음식을 싸준다. 군인들은 자신들은 여기 오지 않았다고 하며 돌아간다.

이야기는 실감나고 있음직한 이야기다. 그런데 시차를 그대로 두어서 30여 년 전 이야긴지 오늘의 이야긴지 잡히지 않으며 군인들과의 화해의 장면이 조금 치밀하게 그려지지 못한 것 같다. 때문에 주제가 조금 흐려지며, 흘러간 후일담처럼 들리는 게 힘이다.

4. 마라톤 * 이 제목의 만화가 있는 것 같다.

백혈병으로 쓰러진 친구 신일이를 돕기 위해 5학년 1반 아이들이 모금운동으로 마라톤을 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남도 돕고 마라톤을 통해 자신들이 한계에 대한 도전도 되고 짝꿍끼리 우정도 생긴다는 이야기다.

너무 많은 주제를 단편에 담기에는 벅찬 것 같아 장편의 한 장면을 빼 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5. 5월의 일기

3일 전 광주로 발령을 받아 서울에서 이사를 온 김민주는 다락방에서 현 일기장을 하나 발견한다. 그 일기장은 1980년 3월 3일부터 시작되어 5월까지 쓴 일기장으로 6학년짜리가 쓴 일기장이다. 민주와 같은 나이에 같은 학년의 일기장이다.

일기 형식으로 80년 5월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좋은 발상이었는데 뒤에 가서 엄마 아빠가 설교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변해버린 것이 힘이다.

80년 5.18을 문학으로 형상화 해 내는 일은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빼어난 작품이 없다. 그렇다고 너무 사실적이고 교과서적인 설명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도 조금성과 우리의 욕심이 아닌가 한다.

6. 늑대의 시간

이리와 늑대는 같은 짐승을 두고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런지 문학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또 여우도 나오는데 짐승의 이야기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잡히지 않

으며 짐승의 이야기도 생태적인 것이나 비유적인 것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7. 눈물 꽃

강변축제에 건강마라톤에 참석하는 인수와 아버지의 이야기다. 인수는 엄마와 비밀 약속을 한다. 아빠와 같이 건강마라톤을 완주하면 최신형 노트북 컴퓨터를 사준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라톤에 참가하여 아빠와 같이 뛰는데 ‘민주주의 사수’라는 글씨홍 글씨를 등에 매단 채 참석한 60대 할아버지를 보고 80년대에 군인의 총에 맞아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 아빠에게 붙었고 아빠는 대답을 못하고 5.18국립묘지에 참석하는 곳으로 갔다가 달리기를 하는 중에 같은 반 싸움대장 광수와 만나 경쟁심이 생겨 열심히 뛰게 된다. 광수하고 싸우던 일로 원수가 저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건강마라톤에서 서로 경쟁하여 이기는 것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따라주지 못해 아빠를 두고 뛰어가다가 어머니와의 비밀 약속을 생각하고 뒤로 돌아와서 아빠와 같이 뛰면서 광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왔다갔다 비틀고 비틀어서 끌고 가는데 중간에 자꾸 흩어진 것이 보인다. 끝으로 가서 인수와 광수의 화해가 너무 설교적이고 작위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걸린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술 담배를 끝냈다고 약속하여 가족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는 너무 진부하게 보인다.

8. 하얀 말이 돌아왔다.

동물의 세계를 빌어서 현실 정치를 풍자하려고 한 것 같은데 풍자 대상과 풍자하는 주체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끌고 가 설정 자체가 흔들려버린다. 그러다 보니 동물의 세계를 그리는데 한 마리 두 마리로 세지 않고 한명씩 두 명씩 모래밭에 앉는다는 등 동물 세계를 그린 것인지 인간 세계를 그린 것인지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관념적인 구호에 그치게 되고 아기자기한 동물들의 생태적 이야기는 멀리 도망가 버린다. 우화동화로서의 성격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9. 내가 알을 낳았다.

기획동화답게 자료를 모으고 취재를 통해 작품으로 끌고 간다. 철학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생태의 건강한 복원을 이야기 하고자 했다.

그런데 기획동화로서 기획의도가 생각만큼 형상화 되지 못한 것 같다. 우선 철학적인 테제가 이야기로 풀어져 관념적인 어려움이 이야기 속에 녹아 추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진리니 사랑이니 하는 명사들은 추상 명사라고 한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추상명사는 친절, 동정, 배품, 배려, 보살핌 등에서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남을 위한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공통점을 모아서 사랑이라는 추상명사 이루어지는 것이다.

철학동화나 종교동화 등 관념적인 동화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념이 추상으로까지 형상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념에 얽혀 추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관념에 머무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려 실패하게 된다.

이 작품도 관념이 이야기로 녹아나는데 실패를 함으로 추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

10. 후투후투 초원 *어데서 본 것 같다.

후투후투라는 아이를 형상화 하는데 현실에 있는 아이 같지 않고 마법을 한다고 하는 초현실적인 아이 같은 대서부터 이야기가 흩어진 것 같다. 현실과 떨어진 이야기. 그러다 보니 실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읽는데도 혼란스러움을 겪게 된다.

거기다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었는데 짐승들이 뜯어먹지 못하게 하는 욕심 때문에 숲이 죽고 다시 사막이 된다는 것은 자연이 법칙도 없이 작가의 마음대로 생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필연성이

없어져 버린다.

**11. 마니나개미왕국의 탄생

현실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을 옛이야기로 바꾸는 시도는 참신함으로 읽힌다.

노랑개미왕국의 권력 승계에서 포악케 공주는 권력을 잡기위해 거짓과 술수를 쓴다. 권력을 승계하는 조건은 알을 많이 낳아서 왕국을 부흥시키는 능력을 인정 받는 것이다. 포악케 공주 개미는 알을 많이 낳으려면 배가 커야하기 때문에 배에 스트로폼을 넣어 배를 키우는 수술을 하고 비밀을 알고 있는 의사개미를 더듬이를 떼어버려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붉은 개미알을 훔쳐 자신이 낳은 알처럼 소기는 등 거짓과 무자비한 일을 일삼는다. 그래 결국은 왕국을 이어받아 여왕으로 등극을 하고 마니나개미는 능력이 더 좋지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 신세가 되다.

여기서 포악케 공주는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5.18에 죄 없는 국민을 학살하는 등 권력을 위해 무자비한 일을 일삼는다거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속임수를 쓰는 등 권력을 위해 하는 행동들의 보편성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은 무난한 설정이다. 그런데 개미세계를 그리면서 스티로폼을 배에 넣고 수술을 한다거나 마니나개미가 포악케공주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확성기를 들고 이야기를 한다는 등 인간들의 최신 발명품들을 쓴다는 것은 치명적인 흠이 된다. 외국 전래동화에 늑대 배에 돌을 넣고 꿰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를 했으면 한다.

12. 오일팔씨

5.18때 기사들이 몰고 참여했던 버스를 끌어 내 이야기를 끌여가는 것은 참 참신하고 좋았다. 그런데 이 참신함만 있고 이야기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5.18을 직접 겪지 않은 작가가 쓴 작품이겠지만, 그 당시 신문이나 실제로 겪은 사람들을 취재하여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야기를 조금 오밀조밀하게 생활과 연결하여 끌고 가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몽땅그러 몽통만 있지 가지와 잎이 없는 나무처럼 보인다.

***13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5.18 묘지에 체험학습을 나왔던 아이들이 향로에 향을 넣고 묵념을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듣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판타지로 들어가는 문으로 아이들을 1980년 5월 달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 거기서 5.18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기차 화장실 문으로 나와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있다.

교과서적인 판타지 기법으로 형식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여가는 것이 차분하고 좋았으며 끝맺음을 판타지 속으로 끌고 와 시간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현실로 와 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끔 하려는 배려로 읽힌다.

교과서적이지만 그런 점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힘이 된 것 같다.

*14. 마을의 종소리

5.18 부상자로서 어느 마을에 종치기로 일을 해주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마을에 버린 아이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5.18부상자에게 아이를 맡아 기르게 한다. 5.18부상자는 아이를 내 아이처럼 기르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정체성을 찾는 방향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아이 어머니가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 5.18부상자는 정든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고 결심을 하는데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찾으러 왔다가 부상자 아저씨와 사랑을 이루고 행복을 가정을 이룬다는 이야기다.

작품을 너무 객관적으로 끌고 가다보니 중간에 시점이 많이 흐려지는 혼란이 있다.

*15. 절름발이 아저씨

5.18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치고 -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져 고물이나 주우러 다니고-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 그래도 사람 좋게 참아 내고 - 자식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가난과 불행이 5.18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고 - 아이들이 반성하고 - 부상자의 아들을 돕는다는 틀이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고 이런 의식수준을 작품으로 보여준 것이 절름발이 아저씨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5.18을 교육 할 것이며 5.18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문제를 던져주는 작품이다. 5.18 관련단체와 광주전남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다.

16. 개똥쇠 아제

경상도 마을에 전라도 사람이 이사 가서 살아내는 이야기다. 문장이 잘 다듬어지고 간결한 것을 보니 혼란을 많이 한 사람이 쓴 작품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 작품의 결정적인 결점은 우리에게 너무 아픈 지역감정의 나쁜 부분들을 비판 없이 그대로 이미지화 한 것이다.

사람들이 낯선 것을 만나면 먼저 호기심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긴다. 호기심이 생긴다는 것은 선입관이 없거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있는 일이고 선입관이 나쁘거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두려움이 먼저다. 우리가 호의를 갖는다거나 비토를 하는 것도 선입관과 올바르게 못한 정보에서 생겨난 경우가 많다. 부자고, 잘나고, 권력과 지위가 있고 강한 사람에게는 호감이 가고 가난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조금 못났으면 가까이하지 않아야할 부정확한 것으로 이미지화 된다. 전라도와 경상도, 경상도는 잘나고, 힘 있고, 부자고, 권력 있고, 강하고, 그래서 호감이 가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전라도는 힘이 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못나고, 천대받아 문제가 많고 부정확한 이미지로 그려진 것이 현대의 역사다.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전라도 아제는 거지처럼 그려지고 그걸 마을 사람들이 재수 없어 하는 것을 그대로 그리면서 획기적인 반전을 하지 못하고 아주 약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현실을 용인해버리는. 그래서 안 쓰느니 못하는 현실을 만들어 버리고 만다. 이 작품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한 반전을 통해 현실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을 철저히 깨뜨렸을 때만 가능하다.

이상의 작품을 골라내고 3. 오월에 온 손님. 11. 마니나 개미왕국의 탄생 13.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4.마을의 종소리. 15. 절름발이 아저씨를 대상으로 검토해보았다.